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임해영 / 김학주 / 윤현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 서강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

주 제 어

마약중독, 회복기 마약중독자, 직업 활동 경험, 현상학적 사례연구

요 약 문

이 연구는 마약중독 회복자가 중독과 회복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사례 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독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경우, 참여자 1은 '품 잡는 일', 참여자 2는 '수중의 돈과 마약의 위험한 유착', 참여자 3은 '쉽게 벌어 흥청망청 쓰는 일', 참여자 4는 '돈 욕심내는 일에서, 의존된 삶으로'란 본질적 의미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의 경우, 참여자 1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 '회복 동반자의 길', 참여자 2는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회복의 길', '속죄 의식', 참여자 3은 '새 출발을 위한 진통', 참여자 4는 '자립을 향한 항해의 시작'이란 본질적 의미로 주제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회복 과정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 시사 받을 수 있는 논의 점과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접 수 일 : 2018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21일



생명연구 제48집 2018년 5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48, May 2018, pp. 207~265
<https://doi.org/10.17924/solc.2018.48.207>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1)

임해영**(동국대학교)
김학주***(동국대학교)
윤현준***(서강대학교)

I. 서론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평생을 허황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적게 벌어서 먹고 사는 데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참여자 2 구술 중에서)”

한 개인에게 직업이란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생계 수단이면서, 그것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의

*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878).

** 주저자, 교신저자 / *** 공동저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약에 의존된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 속에서 그들의 생계 활동과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위의 구술처럼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기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직업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중독을 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마약중독 및 관련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법적으로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¹⁾.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서비스 개입은 주로 치료보호, 치료감호, 수강명령, 교도소 내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 국가제도를 활용한 강제적 치료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그리고 이것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접근에 있어, 주로 교정적, 의료적 측면에서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공급선의 다양화 및 대형화, 신종 마약류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에서도 단순 투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⁴⁾. 이것의 근거로 2011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1) 박영수, 「마약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한국경찰학 회보』 16권 1호, 2014, 5쪽.

윤현준, 『약물의존자 회복체험 연구 : 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쪽.

2) 박성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개선 방안」, 『교정연구』, 51권, 2011, 213-219쪽.

3) 박진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법학논문 집』, 39집 2호, 2015, 219-220쪽.

4) 박영수, 2014, 9쪽.

9,984명, 2015년 11,916명으로, 이것을 암수 범죄⁵⁾의 개념으로 적용해 볼 때 마약류 중독자는 약 10만~11만여 명 정도로 추산 된다⁶⁾. 또한 이들 중 단순 사용사범은 검거자의 50%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처벌과 격리 위주의 정책적, 실천적 접근보다는 재활과 예방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약 중독에 대한 학계의 연구 접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가?

먼저 마약류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것의 정의, 범위,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⁸⁾.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보호 및 개입에 관한 연구⁹⁾, 마약중독 예방 및 이들의 치

5)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의 약물 사용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마약류 중독자 수는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공식적 숫자에다가 드러나지 않는 암수적 인원 약 10배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해국·이보해,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 『보건복지포럼』 200호, 2012, 37쪽.

6) 식약처,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6.; 을지대학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1쪽.

7) 정재원, 『마약중독자재활시스템 및 신종마약 연구』, 법무부, 2014, 21쪽.; 박영수, 2014, 5쪽.; 박진실, 2015, 201-202쪽.

8) C, Yorke, “A critical review of some psychoanalytic literature on drug addiction”, *Th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3(2), 1970, pp. 141-159.; 가톨릭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2009마약류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10.; 트리 리샤르, 윤예니 옮김, 『약물중독』, 도서출판 NUN, 2011.;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13.; 정재원, 2014,

9) L, Nelson-Zlupko, E, Kauffman, MM, Dore, “Gender Differences in Drug Addic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with Substance-Abusing Women”, *Social Work*, Vol 40 N0 1, 1995, pp. 45-54.; J, McIntosh, N, McKeganey, “Addicts’ narratives of recovery from drug use: constructing a non-addict identity”,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0 No 10, 2000, pp. 1501-1510.; 강선경·윤현준,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 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교정연구』, 21호, 2003, 86-115

료, 재활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¹⁰⁾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마약 중독 현황과 실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의료적 개입,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 정책 및 전달체계 수립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을 개인의 독특한 내적 경험에 따른 전인적 변화 과정으로 보려는 시각들이 출현함에 따라,¹¹⁾ 당사자들의 경험에 주목한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위 질적 연구들은 중독자들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삶의 주요 의미를 실존적 자기구성¹²⁾, 가족 및 동료,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지지¹³⁾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적 연구들 역시 회복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마약중독자들의 직업적 활동 그리고 회복과 직업활동간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고

쪽.; FD, Wright, AT, Beck, CF, Newman, BS, Liese, 이영식·이재우·서정석·남범우·옴김, 『약물중독의 인지행동치료』, 하나의학사, 2003.; 이민수, 「약물의존자의 치료재활에 관한 연구: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약연구』, 3호, 2006, 35-46쪽.; 박은호, 「마약류 투약 범죄자 치료·재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극기 체험 활용방안」,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의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9.; 강은영·신성만, 『마약류 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012.; 정진욱·윤시몬·채수미·최지희,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정재원, 2014.

11) 백형의·한인영,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세상에서의 되살이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권 3호, 2014. 151-177쪽.

12) 최은미, 『NA자조모임을 통한 마약의존자의 회복경험 탐색』,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근무, 『약물의존자의 빠져있음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윤현준, 『약물의존자 회복체험 연구: 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강선경·문진영·양동현, 「마약중독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연구: 질적 사례연구접근」, 『재활복지』 20권 1호, 2016, 87~111쪽.

13) 최은미, 2011; 백형의·한인영, 2014; 강선경 외, 2016.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핵심적 요소로 직업 재활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독자들의 직업적 성취는 재활과정의 목표인 동시에 완전한 재활을 향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⁴⁾ 더욱이 이들의 직업적 선택과 유지가 중독자들의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기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활동 경험을 탐색해보는 것은 이러한 직업 활동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직업재활 정책 및 실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마약중독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 경험에 대한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약중독 회복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 재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과 제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마약이란 아편, 대마,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것으로 미량만으로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며, 강한 중독성과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로 인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14) 차진경·김영선·신영한·김동준·양순승·정지영, 『중독자 직업재활 모형개발연구-카프 지역재활 모형 중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3.

15) 이금진,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약물로 정의된다¹⁶⁾.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이처럼 마약중독은 강력한 내성과 금단 현상으로 회복이 어렵고 단약을 하더라도 1년 이내에 9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면서, 개인 및 그 개인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는 ‘소리 없는 총기’라는 악명을 얻고 있다¹⁸⁾. 이러한 측면에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며, 이들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맥락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직업 재활이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¹⁹⁾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의 어떠한 측면이 중독자들의 회복과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치료적 공동체 프로그램 내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마약류 중독과 같은 약물중독자 개인의

16) 정재원, 2014; 박영수, 2014.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8) LA, Fisher, JW, Elias, K, Ritz, “Predicting Relapse to Substance Abuse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Dimensio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 22, Issue 5, 1998, pp. 1041-1047.; GL Bailey, DS Herman, MD Stein, “Perceived Relapse Risk and Desire for 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among Persons Seeking Inpatient Opiate Detoxification”, *Journal of substance abuse*, Vol 41 No 8, 2013, pp. 593-597.; 박영수, 2014; 강선경 외, 2016.

19)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 「정신장애인, 가족, 재활스텝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연구」, 『직업재활연구』 13권 1호, 2003, 147-168쪽.; 손명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5권 1호, 2006, 25-27쪽.; H, Sumnall, A, Brotherhood, “Social Reintegration and Employment: Evidence and Interventions for Drug Users in Treatment”,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EMCDDA) Insights Series*, No 13. 2012.; 박중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와 회복에 대한 사례연구 : 사회복귀시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⁰⁾.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중독자들이 공개채용이란 방식으로 직업 기회를 얻거나 약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²¹⁾. 나아가 직업 역할과 유지가 약물 관련 중독자들이 현실 문제에 직면하고 대처하는 기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 연구들은 직업 재활 서비스가 중독자들이 약물로부터 탈피한 생활 유지 및 개인의 정체성 형성, 현실 문제 대처 능력 향상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직업 재활에 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²²⁾ 혹은 알코올 중독자²³⁾의 직업 재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위 연구들은 직업 재활이 정신 장애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²⁴⁾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사회 내 새로운 생활구조 구축 및 관계망 형성²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직업재활 관련 연구들은 정책적 차원의 직업재활 모형, 전달체계 구축²⁶⁾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

20) CW, Pratt, KJ, Gill, NM, Barrett, MM, Roberts , *Psychiatric Rehabilitation*, NY: Academic Press, 2013.

21) SL, West, "The utiliz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ies in the U.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9 No. 2, 2008, pp. 71-75.

22) 송혜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개입 방안 : 사회복지훈련과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우암논총』, 30호, 2008, 1-17쪽.; 나운환·이창희·김춘만·김동주·이운식·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서울: 집문당, 2014.; 박중은, 2017.

23) 이용순·우문정, 「알코올중독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과정」, 『한국알코올과학회지』 6권 1호, 2005, 63-71쪽. 차진경 외, 2012.; 최조순·하경희·이사라,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중독 예방·지원체계 구축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5.

24) 최조순·하경희·이사라, 2015.

25) 송혜자, 2008; 나운환 외, 2014.

연구들은 마약중독 회복자의 직업 재활 이슈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소수의 치료 공동체, 재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중심으로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²⁷⁾ 그렇지만 위와 같은 실천적 노력은 마약중독 회복자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학문적 접근과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회복기에 들어선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활동 경험을 당사자와의 심층 면담에 기반 한 질적 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할 때 기초 연구로써 유용한 접근이다²⁸⁾.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중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과 회복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현상학적 사례연구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6) 차진경 외, 2012.

27) 이철희(2012)는 마약 중독자의 직업재활 관련 시설로 ‘송천재활센터(2016년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로 명칭 변경됨)’,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2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의탁출소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중독에 초점을 맞춘 회복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참여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쉽지않다. 이철희, 『한국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마약류사범 사범처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2, 78-82쪽; <http://www.http://www.drugfree.or.kr>

28) 정정호·정익중, 「요보호 아동의 표류(drift)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 39호, 2012, 187쪽.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사례 연구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중독 및 회복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사례연구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체험한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는 현상학적 방법²⁹⁾과, 하나 이상의 사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험하게 된 현상의 공통적 의미를 드러내는지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³⁰⁾가 결합된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가 개별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공통성을 기반으로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공유되어지는 공통된 의미들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이와 같은 질적 사례연구의 장점을 일부 활용하면서도, 개별 사례들이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체험의 고유한 의미를 본질 구조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이 그들의 중독과 회복 과정을 어떻게 체험하며, 이것은 그들의 직업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29)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2014, 29쪽.

30) Croswell,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2010, 111쪽.; 이근무·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호, 2010, 113쪽.

2.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마약중독 문제로 인해 보호관찰, 치료감호, 치료보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의 법적조치 및 강제치료제도³¹⁾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약중독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자 마약중독 관련 재활기관³²⁾에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집중적 치료기간인 3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³³⁾ 둘째,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소 기간 중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퇴소 이후 개별적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31) 이민수, 「약물의존자의치료재활에 관한 연구: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약연구』 3권, 38-40쪽.

32) 2016년 9월 현재 국내에 지역사회 내 위치해 있으면서 마약중독자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스스로 입소할 수 있고, 민관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마약 관련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개소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 [www.http://koreha.or.kr](http://koreha.or.kr)

33) 선행 연구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 단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관련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3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들을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회복 과정 안에서의 직업적 경험이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3개월 동안 재활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공동체 프로그램((Therapeutic Community Program)을 통해 마약류 및 중독에 대한 이해,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을 학습하게 된다. 나아가 재활센터에서는 이러한 3개월간의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직업 훈련 및 활동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재활센터에서 3개월간의 입소 기간을 마치고, 직업 재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복기 마약중독자로 보고,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AB, Laudet, K, Morgen, WL, White, “The Role of Social Supports, Spirituality,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Affiliation with 12-Step Fellowships i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in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Vol 43 No 1, 2006, pp. 33-73; 강선경 외, 2016, 4쪽.

연구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기 위해, 마약중독 관련 재활시설 실무자에게 연구 참여자 추천을 의뢰하였고, 2명의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1명이 나머지 2명을 소개하여 총 4명이 이 연구 참여자로 추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 현장 전문가에 의한 추천 방식인 세평적 사례선택과 연구 참여자가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 방법이 함께 병행되었다.

〈표 3-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사용 마약류	재활센터 입소기간	단약기간
1	남	53세	전문대졸	본드, 필로폰	1년	14년
2	남	55세	고졸	필로폰	6개월	15년
3	남	45세	중졸	본드, 대마초, 필로폰	4개월	6개월
4	남	49세	고졸	필로폰	6개월	6개월

3. 자료 수집 및 분석

원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구성하였다. 심층면담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선정하되, 면담 내용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실 혹은 룸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횟수는 연구 참여자별로 평균 5회 정도의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90분 내외

가 소요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재활센터 및 치료 공동체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인을 1회씩 면담함으로써,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적 활동 경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이 연구가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의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의 틀을 원용하였다. 먼저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들이 중독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직업 활동의 특수한 맥락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사례별 체험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사례별로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단위 분석이란 현상학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화 방법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단위에서 새로운 의미단위로 이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³⁴⁾. 그런데 질적 사례연구의 사례 간 분석이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경험에서 공유되는 공통적 의미들을 의미단위, 줄단위 분석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별 구분 없이 공통된 범주로 묶는데 반해,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사례별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사례별로 그것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게 된다.³⁵⁾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심층적 의미단위를 ‘드러난 주제’로 개념화 하고, 이것을 현상학적

34) 이남인, 2014, 35-38쪽.

35) 이근무·김진숙, 2010, 114쪽.

해석을 통해 본질적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간 경험은 직업 활동이란 공통적 현상으로 공유되어 있다는 점³⁶⁾에서, 사례별 분석은 ‘중독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과 ‘회복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이란 2가지 공통된 주제로 묶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들 체험의 본질적 의미가 위 2가지 공통적 주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³⁷⁾. 이러한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연구 과정 안에서 연구자 개인의 반성적 성찰(reflective self-examination) 및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 다원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일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컨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연구자의 태도 안에 이들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 권력적 질문 등이 없었는지를 ‘윤리적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다원화 방법은 심층 면담 녹취록 자료와 더불어, 기관 실무자 면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다원화 방법은 마약중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의 풍부한 해

36) 송진아·강경화, 「여성의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44권 3호, 2013, 120-121쪽

37) 송진아·강경화, 2013, 122쪽.

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바 있고, 회복기 중독자들의 공개적 자조모임(N.A)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약물중독 관련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1인, 마약중독자를 돕는 현장 전문가 1인의 조언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 1인(참여자 2)이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마약 중독자, 범죄자라는 이중적 오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 연구 참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에 대한 IRB 승인³⁸⁾을 받았다. 그리고 이 IRB 승인 내용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 설명문, 동의서, 녹취 원칙, 비밀 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 중단, 면담자료의 안전한 보관, 연구 참여에 따른 답례 등의 전반적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모든 연구를 진행하였다.

38) IRB 승인 과제번호: DUIRB-20161219-018

IV.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중독자에서 회복자로의 삶의 변화 맥락

1) 사례 1

참여자 1은 2017년 3월 인터뷰 당시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마약 중독으로부터 약 14년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가진 상태이다. 그는 오랜 기간 아버지 몰래 친정을 도와준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어머니를 외형상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기대치에 벗어나서도 안 되는 존재이었다.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참여자 1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개인과외, 각종 학원 등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는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중학교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와 본드,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비행 행동은 퇴학처분으로 이어졌고, 집을 가출하여 10대 중반 시절부터 유흥업소 등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마약과 도박에 빠져 30대 중반까지 스스로의 삶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다가 은행 대출, 사채 빚 등으로 끌어다 쓴 돈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고, 단약을 5년 동안 시도해 보았지만, 매년 실패하게 되면서 우울감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다. 이러한 삶의 벼랑 끝에서 그는 2번의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진 그는 추운 겨울 노숙생활을 하며 근근이 버텼고, 당뇨 쇼크로 쓰러지면서 주변 노숙인들

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노숙생활과,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노숙인들을 보면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비로소 깊게 하게 된다. 이 후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두 달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 실무자의 소개로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재활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단약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1년 동안 참여하면서, 회복의지를 다지게 된다. 퇴소 이후 그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 신학을 접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좀 더 깊어진 자기 자신과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수년간의 노력 속에서 그는 단약을 위해 처음 입소하였던 재활센터의 제안으로 현재는 이 기관에 입소 대상자들을 돕고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10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다.

2) 사례 2

참여자 2는 2017년 3월 인터뷰 당시 단약을 시작한지는 15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약중독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의 길을 들어 선지는 7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구술하였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쪽 큰 도시에서 금 장사를 하면서, 아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큰돈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금을 사들이는 일을 하였기에, 수중에는 몇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항상 있었고, 유흥거리가 별로 없는 그 시절에 필로폰 투여는 그에게 삶의 큰 자극과 재미를 주는 오락거리였다. 이후 그는 마약 판매가 쉽게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판매상 일도 겸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마약 판매상들 사이에서 금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의 직업적 능력이 마약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헛소문과 연결되면서, 약 5년 넘게 경찰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경찰들을 피해 남쪽 소도시로 거처를 옮기면서 덤프차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심각한 마약중독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결국 그는 환각상태에서 살인이란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그는 심신상실 상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8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그리고 수감생활 동안 그는 가톨릭에 귀의하였고,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수녀의 소개로 6년 동안 가톨릭을 공부하는 과정에 입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중독자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일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유일하게 용서받는 일이라는 자신만의 뜻을 세우게 된다. 특히 교도소 안에서 2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약물중독자 치료 강사들을 몇 년 동안 만나게 되면서, 자신도 그런 강사들처럼 중독자 치료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출소 이후 그는 마약중독자 회복을 돕는 재활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재활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처음에는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복역하는 동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교도소에서 지낸 8년 동안 단 한번도 마약을 해 본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마약중독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불면증, 우울증, 강박적 행동 등의 많

은 문제 행동들이 중독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었다는 것을 점차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자 2는 자신이 재활센터에 입소한 그 시점을 제대로 된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후 그는 재활센터 소개로 마약중독자 치료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체험자로서 몇 번의 교육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현재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약물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에 몇 년 동안 참여 해 오면서, 현재는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로 활동 중이다.

3) 사례 3

참여자 3은 2017년 1월 현재 45세로 마약중독자 회복을 돕는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3개월을 보내고 퇴소한지 3개월째 접어든 시점이다. 참여자 3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본드, 대마초를 접하였고, 15세 때부터 필로폰을 시작하였다. 그가 나고 자란 남쪽 큰 항구 도시는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보니, 마약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런 지역 뒷골목에서 소위 놀기 좋아하는 꺾렁꺾렁한 형들과 어울리던 참여자 3은 그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본드, 대마초, 필로폰 순서대로 단계를 높여갔다고 한다. 그렇게 필로폰을 접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재미삼아 몇 번 투여하였고, 20살이 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후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 마약중독자로 살아오면서, 중간 중간 마약 판매상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여러 번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한편 그는 2013년 어느 날 마약 판매 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3년 가까이 복역을 한 후 출소하게 된다. 출소 후 그는 자신이 예전에 하였던 부동산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행을 받은 터라 3년 동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게 된다. 게다가 복역 전 잘 어울리던 지인들도 예전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는 태도에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겹치면서 그는 무기력감에 빠져들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를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더욱이 가족들, 지인들 모두 자신을 “정신 못 차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리면서, 결국 그는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난폭한 언사와 행동까지 보이게 된다. 그런데 그는 30년 가까이 마약중독자로 살아왔지만, 이때처럼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가 망가진 적이 없었고, 연로한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폭력적인 행동까지 일삼게 되면서 스스로도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마약에 중독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치료받겠다는 결심을 한 후, 스스로 재활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그는 재활센터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딸아이가 20살이 넘도록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번 해주지 못한 것을 가장 미안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재 딸아子和 함께 살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마련해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출소 이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좌절감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만큼, 현재는 재활센

터에서 안내해준 국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갖추는 준비를 해가고 있는 중이다.

4) 사례 4

참여자 4는 연구자와 인터뷰를 시작한 2017년 2월 현재 49세로, 일본 유학시절인 23세 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다. 당시 그는 친한 친구들 3명과 어학연수를 와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룸살롱 웨이터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업소일을 봐주는 한 남성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는 마약을 처음 투여 받았던 느낌이 다섯 살 때 처음 먹어본 “미제 초콜릿의 달콤한 맛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달콤함을 주는 천국과도 같은 맛” 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강렬함에 빠져 그는 스스로 마약 판매상을 찾아 약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여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 있는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귀국하였고, 중간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집에 운전을 하며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운전 중에도 그는 마약 기운이 떨어지자 휴게소에 들러 마약을 재 투여하였고, 이것은 엄청난 사고로 이어져 약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후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몸 상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약 2년의 재활 기간을 통해 그는 겨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허리와 다리가 많이 망가져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큰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이러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렇게 다시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된 그는 30~40대 시절 교도소에 몇 번 수감되기도 하고,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활센터에 입소하거나, 병원 입원, 회복자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로 끝나게 된다. 현재 그는 다시 단약을 시도한지 6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이다. 그는 20대 시절 교통사고가 난 이후 지금까지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관계로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해 본 적이 몇 번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재활시설 등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도 참여해 봤지만, 늘 몸이 아프다는 이유가 자기합리화 가제가 되면서, 일과 자신은 별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의 뒷바라지는 지금껏 어머니가 감당해왔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있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이다. 현재 그는 중독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학과를 졸업한 몇 년 뒤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고향집을 개조하여, 중독자 회복을 돕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볼 구상을 하고 있다.

2. 사례별 현상학적 이해

1) 중독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1) 사례 1: ‘폼 잡는 일’

참여자 1에게 10대, 20대 시절 마약투여는 자신처럼 평범하지 않는 남다른 존재들만이 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것이 “약과 연결된 과대망상”이라는 것을 오

랜 회복기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지만, 한창 때인 10, 20대 시절에는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기에, 마약 중독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경험이라고 착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자신에게는 오직 빛만 있고, 그림자는 없는 화려한 삶만이 계속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연결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렸을 때 약이랑 연결된 삶을 살으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사춘기 때 약을 하는 건 뭔가 우월해 보이고, 난 뭔가 될 것 같다는... 남들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 남들 뭐 힘든 노가다 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비해 난 약을 하면서도 여자들 거닐면서 유흥 뭐 이런데서 불법적인 돈을 벌면서...(중략)...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을 산 것 뿐이죠. 그걸 그때는 화려하게 본 것이고... 계속 잘 나가는 것이라고 본거죠. (남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일)

이처럼 화려한 삶을 구가할 것 같은 참여자 1의 기대는 유흥업소 일을 통해 만났던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기대치를 더욱 배가 시키게 된다. 더욱이 별다른 사회적 배경이 없는 참여자 1에게 그들이 보여준 관심은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느낌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조차도 철없던 시절 한때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했던 품 잡은 일로 바라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 자체는
음... 제가 잊지를 못해요. 굉장히 불량스럽게 자랐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량스럽게 안 보고... 도와주
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방송국에 있는 분
들이나 디자이너 분들과 우연찮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까, 연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한 분도 있었
고, 장사를 하계끔 도와주신분도 있었고... 내가 이런 자
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체가 뭔가 달라 보이니까 더
힘이 들어 간 거고... 그래서 더 착각에 빠져서 잘난 줄
안 거죠. 철없이... 결국은 약 때문에 다 망가진 거고.
(주목받는 존재)

위와 같이 참여자 1은 마약중독에 빠진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겼던 생각 자체가 마약과 연결된 왜곡이었
다고 회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참여자 1의 의미부여
속에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마약중독, 유흥업소에
서의 직업 경험을 ‘남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가 사회적 지
위를 지닌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을 ‘주목 받는 존
재’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중독자로 살아온 그의 20, 30대
시절의 삶의 본질적 의미를 ‘폼 잡는 일’로 해석하였다.

(2) 사례 2: ‘수중의 돈과 마약의 위험한 유착’

참여자 2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전국을 돌며 금을 사고
파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중에는 항상 큰돈이 있었다. 그

서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에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은 약이 주는 강력한 각성효과로 인해, 탐닉으로 변해갔고 결국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가 금을 사고 파는 사업을 했어요. 항상 돈이 있으니까... 그때 일 안하고 휴식할 때 취미생활도 많지 않았고, 또 건전하지도 않았고. 경마장 이런데나 다니고... 각성제 일종으로 봤죠. 쾌락을 높여주는 업그레йд 된 각성제... 그 때 친구가 놔준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해봤죠. 아! 느낌이 확 오더라고. 히로뽕 이게 신비한 약이구나! 처음에 너무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쉽게 찾게 되고, 그 때는 죄의식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 쾌락 이런 것하고 다 연결 되서 빠져드는 거고... (큰돈 만지는 사업을 하면서, 마약을 접함)

그런데 참여자 2의 마약문제는 그가 90년대 후반 남쪽 소도시로 이사를 가 덤프트럭 사업을 시작 했을 때도 지속되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마약문제는 그를 “대장님”으로 부르며, 비이성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환청에 시달리거나 “악마가 보이는” 환시 현상들로 인해 점점 악화일로로 걷게 된다. 결국 그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 동안 벌어놓은 돈 모두를 탕진하게 된다. 더욱이 이 문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살인이란 엄청난 중범죄와 연결되면서, 그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제가 ○○으로 내려왔어요. 금사업 정리하고... 처갓집이 거기 있었거든요. ○○○○라고 21톤차 3대를 갖고 했는데, 한달에 차 한 대당 천이삼백, 오백까지 들어오니 까 한달에 한 오천만원 벌어요. 그럼 깡해서 쓰면 현금으로 4천 이삼백 받아요. 기사들 월급 한 300만원 주고나면 다른 건 다음 달에 줘도 되니까 다 써버리는 거지. 약 할 때니까... 그때는... 한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벌어들였자 버터지나요. 나중에는 다 날려 버린 거지...그러다가 사고가 난거고...(중략)... 사실 피해자가 제 집사람입니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악마가 보이고, 집사람 몸 쪽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뺏어갈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 버린거예요(...이하 중략). (마약으로 번 돈 모두를 탕진 하고, 극악한 범죄까지 저지름)

결국 참여자 2에게 큰 돈 만지는 그의 직업은 마약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약이기보다는, 중독자, 살인자라는 이중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야 할 독약이 되어버린다. 또한 남겨진 가족에게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안기며, 그동안 축적해두었던 모든 재산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게 만드는 치명적 독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수중의 돈과 마약의 위험한 만남은 그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이 연구는 이것을 ‘수중의 돈과 마약의 위험한 유착’으로 의미부여 하였다.

(3) 사례 3: ‘쉽게 벌어 흥청망청 쓰는 일’

참여자 3은 그가 살던 지역 깡패 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한 선배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에게 마약 판매를 부탁하게 된다. 참여자 3은 이러한 선배의 마약을 처분하게 되면서 판매 루트를 상세하게 알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대 초반부터 마약판매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제가 스무살 때 약을 하고 있을 때 인데... 우리가 살던 지역 모 조직에 있는 선배가 잡혀가면서 물건을 놓고 갔어요. 그걸 저한테 처리해 달라고... 그것으로 변호사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처음 소위 판매 식으로 했지. 그거 처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루트를 다 안거고...(중략)... 마 그때는 요만한 소금덩어리 하나 주는데 몇 백만원 씩 준다고 하니까,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 어린 나이에 외제차 타고 돌아다니고. 현금 지랄하고 다니고... (마약판매에 손을 댐)

이처럼 참여자 3은 20대 시절부터 마약 판매로 쉽게 돈을 벌어 흥청망청 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활태도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보다는 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 습성은 자신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는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에 와서 중국집 인수하고 처음에는 잘됐어요. 마

장사가 잘되니까 원래 쓰던 가락이 있는데... 처음에 아 반때 신형을 현금주고 샀는데, 장모집 가다가 일주일 만에 사고 나고, 그랜저로 새로 뽑고... 그러다가 주 5일이 되니까 갑자기 장사가 안되는 거야. 근데도 여태껏 써오던 습성이 있으니, 일반적인 생활은 못하는 거지... 버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한달에 카드 값이 칠백씩 나가는데... 쓰는 건 많지 않습니까? 마 처형한테 손벌리고, 일수도 좀 쓰고... 한계점까지 몰아간거지. 그러다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개버릇 남 못준다고 또 다시 (마약 판매에) 손을 댄거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한거지. (버는 일보다 쓰는 일에 집중함)

결국 20대 초반부터 마약판매를 통해 쉽게 벌어 쉽게 써버리는 소비 습성은 그에게 그물코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물코에 걸린 삶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더 그물코에 움아매어지듯, 그는 좀 더 큰 돈을 벌기위해 다시 마약 판매상이란 불법적인 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 3의 이러한 직업적 활동과 소비 습성을 ‘쉽게 벌어 흥청망청 쓰는 일’로 주제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를 30년 넘게 마약중독자, 마약 판매상이라는 위태로운 인생을 지속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 사례 4: ‘돈 욕심내는 삶에서, 의존된 삶으로’

참여자 4는 친한 친구 3명과 의기투합하여 23세 때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간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부모님께 받아 온

돈이 바닥이 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생활비 감당이 되지 않으면서, 그는 좀 더 큰돈을 벌 욕심에 룸싸롱 웨이터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저하고(3명의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갔어요. 친구 놈들하고 놀다가 야! 도쿄가 서울의 2배라고 하는데 놀기도 좋대. 일본 말도 배우고... 글루 가보자! 이제 4명이서 의기투합해서 어학연수를 가게 된 거죠. 어학연수를 다니니까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막 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머니가 준 돈은 다 썼잖아요. 우리 숙소 한달 월세도 내야하고...처음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달 실컷 해서 7만엔, 8만엔 밖에 안 돼. 어머니한테 큰 소리치고 왔는데... 그러다가 일본에 한 몇 년 먼저 온 애가 ○○○○에 우리나라 룸싸롱이 많아요. 거기 웨이터를 해봐라. 월급이 30만엔인데 팁이 굉장히 많데...그래서 하게 되었어요...(중략)... 거기 이제 가게를 봐주는 한국에서 온 건달. 일본으로 말하면 야쿠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을 잠그라고 한 다음에... 처음에 저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너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 볼라느냐?’ 해서 배우게 된거예요(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속에서 마약과 만남).

이처럼 참여자 4는 일본 어학연수시절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다. 이후 그는 20대 중반 마약 투여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교통 사고 이후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20, 30대 시절 겨우 한 일이라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카운터를 몇 시간 정도 봐주는 것이었으며, 식당 금고에 있는 돈을 얼마씩을 몰래 훔쳐 나와 마약을 구매하는데 쓰는 일상을 지속하게 된다.

사고 후에는 너무 아프고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도, 누나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한번을 안했어요. 누가 나보고 ‘돈 벌어라... 나가서 일 해라’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때는 휠체어 타고, 목발로 이렇게 다니니까 일할 생각도 안해 봤고요...(중략)...어머니는 ○○○이라고 고기 집을 했고요. 뭐 아롱사태 이런 거 파는 식당 있잖아요. 꽤 유명했죠. 그걸 근 십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 저는 돈 걱정은 안하고 살았어요. 제가 한 일이라곤 카운타에서 몇 시간 봐주다가 집에 가고... 병원가서 재활하고 계속 몇 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때는 카운타를 제가 보니까... 하하하... 돈 슬쩍해서 약하고...(부모에게 기대어 온 삶)

요약해보면 참여자 4가 마약과 만나는 과정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룸살롱 웨이터라는 일을 선택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돈 욕심을 냈을 뿐, 그 일이 야기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는 마약에 투여하면서 중독자로 전락하

였고,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교통사고와 연결되어진다. 이로 인해 그는 50살 가까운 삶 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 기대는 의존적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참여자 4가 중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돈 욕심 부리는 삶에서, 의존된 삶으로’란 본질적 의미로 주제화하였다.

2) 회복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1) 사례 1: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회복 동반자의 길’

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참여자 1은 30대 후반까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과 사채 빚, 신장포기각서, 수배자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진 그는 급기야 노숙 생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다. 그런데 10대 시절부터 자신을 남다른 존재로 바라봐 오던 참여자 1이 노숙인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비루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 1은 함께 생활하던 주변 노숙인들의 도움으로 당뇨 쇼크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넘기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하게 가장 최악으로만 여겨졌던 상황에서, 자신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알 수 없는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린 마약 중독이란 악연도 언젠가는 끊어낼 수 있겠다는 어렴풋한 희망의 불씨를 보게 된다.

돈을 돈대로 다 끌어다 쓰고 은행에 있는 대출 건도 다 쓰고, 신장포기 각서까지 쓰면서 돈을 갖다 쓰고. 웬만한 건 약이랑 도박하는데 다 갖다 쓰니까... 이제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2001년도에 제가 어 수배권이 하나 있었어요. 수배자 신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디 아는 데도 못 들어가고, 오갈 데가 없어요. 이제 ○○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한... 두달 동안... 그 당시엔 ○○역에 노숙자가 많았거든요. 뭐 급식소에 밥 얻어(얻어) 먹고, 어디 자리 가서 누워있고... 내가 그 처지가 된 거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중략)...그때 제가 당뇨가 막 400, 500, 600 이라고 그랬는데... 삼일을 그 추운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노숙하고 있는 분이 오더니 힘드냐고,.. 바로 노숙자들 도와주는 병나면 조금씩 봐주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 많이 아픈 것 같다고... 거기서 약 받아 먹고... 다시 힘들어 쓰러져 있으면 저한테 밥을 이렇게 갖다 줘요. 자기들도 먹기도 힘들고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드러운(더러운) 손으로 밥을 줘요. 기분이 참 묘한거야...(중략)...그게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노숙자도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보다 더 어둠속에 있던 사람이 노숙자의 조금만(희미한) 빛을 보고 내가 돌이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이하 중략) (노숙생활이란 절망에서 희망의 작은 불씨를 건져 올림)

한편 참여자 1은 노숙생활을 통해 얻은 작은 희망의 불씨

를 안고 재활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여의 입소생활을 마치고 퇴소하여 복귀하면서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과 만나게 된다.

○○○○에서 퇴소하고 나니까...처음에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평생 약에 절어 유흥 쪽에서만 있던 놈인데... 그러다가 벼룩시장 그때는 거기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잖아요. 전단지 알바를 알아보고... 그 전에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봤죠. 전단지 알바 그거를 6개월 넘게 했어요. 처음에는 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쟁피하고... 사람들 얼굴을 못보겠는데... 도저히 지하철 앞에 서서는 못하겠고, 걸어 다니면서 했어요. 어떨 땐 하루에 10km, 20km씩 걸어 다니고... 땀이 범벅이 되는 거죠...(중략)...남들처럼 일반적으로 사는 걸 고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고생길을 시작을 한 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한 것 같아요.(힘들고 고생스럽게 생각했던 일 도전하기)

이처럼 참여자 1은 그가 가장 비루하다고 여겼던 노숙생활이란 위기 경험 속에서 새출발 하기 위한 계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계기는 그가 사회에 복귀하여 평범한 사람들이나 하는 고생스러운 일쯤으로만 여겼던 일속에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 1의 이러한 직업적 경험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란 본질 주제로 의미화 하였다. 참여자 1에게 노숙생활 경험과 노숙인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은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작은 불씨를 건

저울리는 역설적 경험이다. 그는 이것을 “어두운 곳에서 조그만(희미한) 불빛을 보았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밝은 빛은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강렬함 그 자체이다. 희미한 빛만이 어둠으로 두 눈이 가려진 사람이 실눈을 떴가며 겨우 쳐다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참여자 1의 노숙생활의 위기 경험과 사회복귀 후 그가 비천하게만 여겼던 전단지 돌리는 일에서부터 생계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란 주제로 그의 경험의 본질을 의미화 하였다.

② ‘회복 동반자의 길’

참여자 1은 처음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1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곳을 퇴소하게 된다. 그리고 2년 정도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명절 때면 일부러 정신 병원에 입원하면서 까지 재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 재활센터 실무자의 추천으로 그는 재활센터를 퇴소한지 2~3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멘토 겸 생활지도사의 길을 10년 이상 걷게 된다. 또한 그는 회복하고자 하는 중독자들을 돕는 일이 곧 자신이 회복하는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는 심리적 연대감을 가진 회복기의 중독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한 1년(있다가) 퇴소를 했어요. 퇴소하고 나서

좀 있다가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어머니가 권유해서...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무를 심을래면 땅을 깊게 파야 되는데... 그 땅 파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단단하게 심을라고... 저는 추석, 구정 때도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바닥 어디든지 제가 약을 했던 구역이라... 어디서 발목이 잡혀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러다가 여기도 초창기라 여기 계신 분(직원)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지도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니까 생활지도사를 한번 해보라고... 내 평생에 하하하... 생활지도사란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넘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끌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고 나의 벗이고...내가 그 사람들 회복을 이끈게 아니라 서로의 회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향이 된 것 뿐이에요.(생활지도사의 길이 곧 나의 회복의 길)

한편 그는 자신이 마약중독자에서 회복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생활지도자로 성장해 온 것처럼, 적어도 5년 이상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회복자들을 생활지도사,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회복을 희망하는 중독자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중독성향이 회복성향으로 바뀌는 그 선은 사실 중독자 이외에는 잘 몰라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 사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표현들 뿐이고... 그 안에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과 성취감,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지는... 안 보이는 선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제가 그런식으로 성장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로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런 치료공동체에 가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임자나 센터장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중략)...또 (회복 기간이) 1년 정도 지나면 회복자에서 모델 역할로 가야할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켜보면서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중독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강사, 생활지도사를 어떤 사람들을 최대한 배출해야 합니다(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회복자의 직업 개발).

이처럼 참여자 1은 중독자들이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자신처럼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 연구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중독자, 회복자의 회복을 함께 돕는 일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자 1의 이러한 자기 이해를 ‘회복동반자의 길’이란 본질 주제로 의미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중독자와 회복자의 호혜적 상생을 도모하는 직업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2) 사례 2 :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곧 회복의 길’, ‘속죄 의식’

①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곧 회복의 길’

참여자 2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시설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게 된다. 퇴소 이후 그는 사회에 복귀하여, 4년간 일반적인 직업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이 4년간의 경험을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신도 ‘적게 벌어, 적게 쓰는 것’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적응의 과정이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저도 ○○○○에서 6개월 정도 있고 나와서 4년간 다른 직업 활동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 돈의 귀중함도 알고. 내가 안 쓰면 남는 거구나. 한 푼도 안 쓰고. 우리는 어찌되었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물질적 대가를 받게 되어있어요. 적든지, 많든지.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뭐 이런 거에 내가 익숙해져야 하는 거고. 그거에 익숙해져서 실천이 되어야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적게 벌어, 적게 쓰는 일에 적응하는 것).

또한 그는 직업생활 중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자립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가 일반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고, 이것을 곧 마약중독으로부터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자립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회복이 더 빨리 되는 것이고... 회복이랑 자립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좀 불만이 생기면 금방 포기해 버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에서 나와서 철물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사회가 진짜 냉정하고, 쓴맛을 알았어요...(중략)...그때가 여름인데 비가 막 오는데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손님이 못 본대요. 나보고 가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는데... 우산 쓰기도 뭐하고 비를 쫓쫓 맞고 서있는 거예요. 뭐 하루는 비가 오니까 손님이 별로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참외를 깎아 먹더라고... 그러더니 참외껍데기를 갖다버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기분이 안 나봤어요. 왜냐면 내가 기대를 안했으니까... 아!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이걸 극복해야지, 뭐 내가 이걸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일반 사람으로 살라면 아!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구나...(자립의 지를 다지는 일)

② ‘속죄 의식’

참여자 2는 재활센터 퇴소이후 본격적인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동료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그 일만이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아내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구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구술은 이론적으로 마약을 학습한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공유해줌으로써, 전문가

들을 돕는 일이 곧 중독자들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반영되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 ‘(아내인)피해자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는 뜻을 나대로 세웠어요...(중략)... 그런데 이렇게 약물중독을 (돕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되시는 분들이 체험은 없고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체험자들을 원한다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간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했죠. 강의는 아니고 체험담을 이야기 했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질문도 하고...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같은 치료, 도움 주실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게 우리 형제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죠(전문가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 동료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일).

한편 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도움을 호소하는 주변 동료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를 찾기도 한다.

나 같은 사람 교도소 면회도 가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교육도 가고... 또 이렇게 재발 중인 사람들 회복 돕는 거... 너무 보람스러운거예요. 외로움도 덜

어버리고...(중략)... 이게 내 존재이유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들을 도와주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거기서 내 사는 이유를 찾는 거지(중독자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속에서 찾게 되는 존재가치)

위와 같이 참여자 2는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중독 경험을 공유 해주는 것, 과거 자신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중독자들을 면회 가거나, 중독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돕고 뒷바라지 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참여자 2의 생각과 실천 행위를 그가 아내에 대한 속죄를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에서 찾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속죄 의식’이란 본질 주제로 명명하였다.

(3) 사례 3: ‘새 출발을 위한 진통’

참여자 3은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3개월을 보내는 동안 먼저 회복의 길을 걸어온 선배, 생활지도사, 여러 전문가들에게 정상적인 직업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직업훈련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을 받게 된다. 참여자 3은 그것을 “기초를 다지는 일”로 구술하고 있는데, 그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일,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갖추는 일 그리고 3년 뒤 다시 부동산업을 시작하기 위해 공인된 자격증을 따는 일에서, 스스로 기초를 다지는 일을 찾고 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나 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요 앞에도 안 걸어 다녀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다들 사는데...그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지에. 나름대로 다 안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형님들, ○○○ 선생님, ○실장님 아시지에... ‘나중에 부동산 한들 삼년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해라, 자격증 하나라도 따라’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 공단인가 뭐가 있어요. 출소자들 상대로 허그 일자리 해주는 게 있어요. 전화를 해봤거든요.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인터넷에 야학 있지에... 그런 것도 있고. 야학 같은데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부동산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쓰면 반반 먹기를 해주잖아요. 괜히 남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급하게 맘 안 먹고 천천히 해볼라고요..(기초를 다지는 일)

이처럼 참여자 3은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약을 판매하고 싶은 욕망도 피어오르고 있다. 또한 그는 운전, 배달일 등과 같은 폼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심리적 복잡함 속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가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기술이 뭐 있습니까?
 이제 쉽게 만 살아왔으니까 안한다, 안 한다 머리 속으
 로는 생각을 해도 또 핑계는 할게 없다, 할게 없다... 다
 시 약이나 팔지... 또 그 생각으로 가 있고. 집에서 몇
 만원씩 받아쓰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눈치도 보이고,
 딸한테도 뭐 하나 사주고 싶지 이란데... 초등학생처럼
 용돈이나 받아가며 쓰고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로 돌아갈라든 아무래도 자격증이 필
 요한데... 빨리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막상
 알아보면 운전하는 거 그것 밖에 없고... 뭐 치킨, 피자
 배달 알바라도 해야 하는데, 평생 품생품사로 살아온
 놈이... 좀 놀아봤다 아닙니까? 남 밑에서 그런 일을 해
 야 하나 쉽지 않고... 괜히 재발하는 거 아니야 싶어 불
 안하고...(내적 갈등)

이처럼 참여자 3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는 30년 가까이 마약
 중독자와 판매상으로 살면서 굳어져 온 자신의 삶의 태도에
 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상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향해 달려 나가고
 싶지만, 습성으로 굳어진 중독자 그리고 마약 판매자로서의
 일탈적 삶이란 두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연
 구자들은 이러한 참여자 3의 구술의 의미를 ‘새 출발을 위한
 진통’으로 해석하였다.

(4) 사례 4: ‘자립을 향한 항해의 시작’

참여자 4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하게 된 것은 법원 수강명령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그때 그는 교육 강사로 참여했던 사람이 예전에 알고 지냈던 유명한 깡패이자 마약중독자였던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그는 처음으로 마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단약에 대한 이러한 그의 시도는 어느새 중독자로 전락해 있는 자신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매번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 가까운 세월 회복자와 중독자 사이를 오가며 힘겨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하게 된다.

○○○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 하시기 전에는 깡패 비슷한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은 ○○에 사시는데 그때 (그 형이) 저희 ○○으로 도망 내려와 있었어요.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디스코텍에 놀러가서 보잖아요. 제가 살던 지역에 ○○○○이라고 유명한 깡패조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도 잘 알잖아요. 그때는 ○○형이었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형이 전도사로 ○○ 기소유예자 교육에 오신거죠. 그때도 두 번째 약으로 집힌건데 하나님이 보우하사 어머니가 변호사 쓰고 이래서 항소심에서 나와서 그 교육을 들은 거예요. 아! 어떻게 저 사람은 깡패고 마약중독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거예요. 그때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회복보다 중독이 션어요. 항상 중독이 이겼어요. 그

런데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로 날 꼭 인도하십니다. 가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주세요. 또 다시 회복하러 병원에 입원하고, ○○○○에 전화해서 ‘저 재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세월이 (10년 넘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자기와의 싸움).

이처럼 그는 오랜 세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도 이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자신처럼 중독자로 살아가는 고향 지인들의 단약을 돕고, 자신처럼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다.

○○○교수님이 창단한 ○○○학과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붙었어요. 이제 저는 그걸로 하나님께 가는 일을 일평생 할려고 합니다. 제 고향이 ○○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일본에 간 놈이 네놈이 있어요. 하나는 죽었고... 이제 나랑 셋하고... 선배들까지 하면 한 20명은 되잖을까? 내려가서 그들부터 단약에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일단 내가 준비가 돼서 갖췄을 때 가야하는 거니까... ○○○○학과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라고 합니다...(중략)...나만의 뭘 좀 갖췄을 때는 마약 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센터 같은 거... 마약중독자들은 재발을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병원 아니면 교도소 가는 거 밖에 없습니

다. 일본 ○○○ 개네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둘둘씩 멘토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한 20년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만성들이 재발했다가도 다시 회복하러 갈 수 있고, 회복하다가도 지치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 도전의 시작).

요약해보면 참여자 4는 고향에 있는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치유공동체를 향후 자신이 해야 할 직업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첫 시도로써 중독 관련 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이것을 연구자들은 평생 부모에게 기대어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온 그가 스스로 자립해 나가기 위한 첫 향해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향해는 단약과 재발이란 오래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그의 도전은 첫 향해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적 경험을 총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이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변화되기까지의 삶의 맥락’, ‘중독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회복 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이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되는 밑바탕에는 말초적 자극거리를 찾고자 하는 일탈적 호기심과 도덕적 무감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뚤어진 호기심과 도덕적 무감각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마약은 이들에게 극단의 쾌락감을 선사하면서 그것을 탐닉하는 중독자 신세로 빠져들게 한다. 반면 이들이 중독자에서 회복자로의 변화되는 지점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밑바닥이라는 파국을 경험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이것은 참여자 1, 2, 3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참여자 1은 엄청난 빚과 노숙생활이란 위기 경험 속에서, 참여자 2는 살인이란 중범죄 속에서, 참여자 3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패륜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파국의 경험 속에서 비로소 중독을 끊어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 중독에 빠져 있음과 재발을 이끄는 강력한 동인을 도덕적 해이로 보았던 선행 연구 결과³⁹⁾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개입에 있어서, 이들의 도덕적 성찰과 재

39) 이근무, 2013; 윤현준, 2013; 강선경 외, 2016

무장을 위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독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업 활동 경험 중,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중독자들이 마약에 사로잡히면서 오직 돈 되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약 판매(참여자 2, 3)와 같은 불법적 범죄 행위를 하거나, 룸살롱 등과 같은 퇴폐적 유흥업소(참여자 1, 4) 등에서 돈을 버는 직업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중독 상태에 있는 중독자들은 돈이란 목적달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을 어떠한 가치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독자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어드리고자 했던 만큼, 마약, 도박, 무분별한 소비 습성으로 가진 돈 모두를 탕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은 하나의 패턴으로 고착되어 그것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결과가 시사 하는 것은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재활은 돈과 돈버는 일에 대한 당사자들의 성찰과 의미있는 가치 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돈을 벌고 소비하는 일에 대한 현실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회복과정에서의 직업 활동 경험 중 주목해 볼만한 점은 마약중독 회복자들은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의 지향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이들은 중독 과정 안에서 경험했던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직업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거나(참여자 3, 4) 혹은 생계 활동을 통해 고단한 세상살이에

대한 현실 감각을 키우게 된다(참여자 1, 2). 나아가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들의 직업 활동의 긍정적 의미를 심리적 연대감을 가진 동료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활동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것은 동일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직업적 행위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거나(참여자 1, 2), 자신이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이러한 행위에서 찾는 태도(참여자 1, 2, 4)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독자들의 회복이 혼자서 가는 고독한 길이 아니라 동료 회복자, 중독자, 일반인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⁴⁰⁾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재활은 이들의 직업 활동에 대한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독자들에게 호혜적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중독 회복자들의 직업재활에 있어 윤리적 민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마약중독 회복자들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의 귀환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회복자들의 직업적 정상성을 키워주는 것이 이들의 단약과 회복 유지에 도움이 된다

40) WL, White, 2009, The mob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to support long-term, addiction recovery, *Journal of Substance Abuse*, Vol 36 No 2, 2009, pp. 146-158.; DW, Best, DL, Lubman, The recovery paradigm: A model of hope and change for alcohol and drug addiction, *Australian Family Physician: Melbourne*, vol. 41 No 8, 2012, pp. 593-597.; 강선경 외, 2016, 105쪽.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 개입은 사회적으로 금기 시되는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직업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 평범하고 소박한 직업 활동에 대한 건강한 가치부여, 건강한 돈벌이와 소비생활에 대한 윤리적 성찰 및 지속적 훈련과 연결될 수 있겠다.

둘째, 정상적 직업에 대한 다양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통해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한 현실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회복자들은 사회통념상 건강하고 평균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업 활동과 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곧 자신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참여자 3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생각과 실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간극의 틈을 메우는 것은 회복자들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직업적 현실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회복자를 마약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준전문가, 전문가로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과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회복자들은 동료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이 곧 자신들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회복자가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직종에서 양자 모두가 긍정적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회복자들을 마약 예방과 치유를 위한 준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이러한 준전문가는 중독자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

41) 강선경 외, 2016, 108쪽.

혹은 동료상담가 등이 그 역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준전문가의 역할은 회복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약중독 회복자들의 직업재활 정책은 적어도 3년 이상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준전문가, 전문가의 길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직업적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국내의 경우, 소수의 실천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마약중독 회복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제도적, 실천적으로 보완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국내 연구는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직업 활동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별 사례 간 공통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회복기 마약 중독자들의 직업 활동 경험이 공유하는 공통적 주제들을 도출해내는데, 역점을 둔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마약류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10,
- 강선경 · 윤현준,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교정연구』, 21호, 2003.
- 강선경 · 문진영 · 양동현, 「마약중독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연구-질적 사례연구접근-」, 『재활복지』, 20권, 2016.
- 강은영 · 신성만,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 ·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김남희,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9권, 2008.
- 김영천 · 나운환, 「물질의존자의 직업가치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21권, 2011.
- 나운환 · 이창희 · 김춘만 · 김동주 · 이운식 · 이혜경, 『직업재활시설론』, 집문당, 2014.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13.
- 박규석, 「약물의존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인천 및 부산지역 자조모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영수, 「마약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

- 구」, 『한국경찰학회보』, 16권, 2014.
- 박은호, 「마약류 투약 범죄자 치료·재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극기체험(챌린지 로프 코스)활용 방안」,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012.
- 손명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권, 2006.
- 송진아·강경화, 「여성의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4권, 2013.
- 송혜자, 「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개입 방안: 사회복지 훈련과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牛岩論叢』, 30호,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의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9.
- 윤현준, 「약물의존자의 회복체험 연구: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근무·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권, 2010.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2014.
- 이민수, 「약물의존자의 치료재활에 관한 연구: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마약연구』, 3호, 2006.
- 이철희, 『한국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마약류사범

- 사법처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2012.
- 이해국 · 이보해,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예방 정책」, 『보
건복지포럼』, 2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약 동기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부곡병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 정정호 · 정익중, 「요보호 아동의 표류에 관한 질적 사례연
구」, 『한국아동복지학』, 39권, 2012.
- 정재원, 『마약중독자 재활시스템 및 신종마약 연구』, 법무부,
2014.
- 정진욱 · 윤시몬 · 채수미 · 최지희,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현황
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차진경 · 김영선 · 신영한 · 김동준 · 양순승 · 정지영, 『중독자
직업재활 모형개발 연구-카프직업재활 모형 중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3.
- Denis Richard, 윤예니 옮김, 『약물중독』, 도서출판 NUN, 2011.
- Aaron T., B., Wright, F., D., Newman, C., F., Liese, B., S.,
이영식 · 이재우 · 서정석 · 남범우 옮김, 『약물중독의
인지행동치료』, 하나의학사, 2003.
- Acevedo, A, *Racial/Ethnic Disparities in Performance
Measures for Outpatient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Treatment*, Doctoral Dissertations, Brandeis
University, 2012.
- Alexandre, B., L., “What does recovery mean to you?
Lessons from the recovery experience for research
and practice” , *Journal of substance abuse*, Vol. 33

No. 3, 2012.

Best, D., W., Lubman, D., L., “The recovery paradigm: A model of hope and change for alcohol and drug addiction” , *Australian Family Physician: Melbourne*, Vol. 41 No. 8, 2012.

Genie, B., Herman, D., Michael, S., “perceived relapse risk and desire 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among preson seeking inpatient opiate detoxification” ,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 Vol. 45 No. 3, 2013.

James, M., Neil, M., “Addicts’ narratives of recovery from drug use: constructing a non-addict identity” ,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0 No. 10, 2000.

Koletsis, M., Niersman, A., JT van Busschbach,, “Working with mental health problems: clients’ experiences of IP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4 No. 11, 2009.

Krupa, T, “Employment, Recovery, and Schizophrenia: Integrating health and disorder at work” ,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Vol. 28 NO. 1, 2004.

De Leon, G, *The therapeutic community theory model and method*, NY:Springer Publishing, 2000.

Nelson-Zlupko, L., Kauffman, E., “Gender differences in drug addic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with substance-abusing women” ,

- Social Work*, Vol 40 No 1, 1995.
- Pratt, CW, Gill, KJ., Barrett, NM., Roberts, MM., *Psychiatric Rehabilitation*, NY: Academic Press, 2013.
- Laudet, AB., Morgen, K, White , WL., “The Role of Social Supports, Spirituality,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Affiliation with 12-Step Fellowships i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in Recovery from Alcohol and Drug Problems” ,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Vol. 43 No. 1, 2006.
- Rogers, JA., “Work is key to recovery”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Vol. 18 No. 4, 1995.
- Sumnall, H., Brotherhood, A., *Social Reintegration and Employment: Evidence and Interventions for Drug Users in Treatment*, Free Press, 2012.
- White, WL, “The mob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to support long-term , addiction recovery” , *Journal of Substance Abuse*, Vol. 36 No. 2, 2012.
- Yorke, C, “A critical review of some psychoanalytic literature on drug addiction” ,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 43 No. 2, 1978.
- West, SL, “The utiliz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ies in the U.S” ,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9 No. 2, 200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홈페이지」 , <http://www.drugfree.or.kr>
(검색일: 2017. 01. 1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검색일: 2016. 09. 10)

A Study on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tivity of the Recovering Drug Addict

Lim, Hae Young(Dongguk Univ.)

Kim, Hak ju(Dongguk Univ.)

Yoon, Hyun Joon(Sogang Univ.)

This study utilized a method of phenomenological case study for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in-depth meaning of occup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addiction and the recovery of drug addicts. Therefore, four study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analysis was performed by case. For occupationa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addiction, the following essential meanings were derived in the analysis: 'bragging' for participant 1, 'dangerous affinity of the money in hand and drugs' for participant 2, 'easy money and waste of money' for participant 3, and 'from a greedy life to becoming dependent' for participant 4. For occupationa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recovery, the following essential meanings were presented as themes: 'starting from the bottom', 'being a recovery partner' for participant 1, 'living an ordinary life is the way to recovery', 'atonement' for

participant 2, 'pain of a new start' for participant 3, and 'start of a voyage to independen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and interventions suggested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who are in the process of recovery, are proposed in this study.

Subject : Social Welfare Practice, Mental Health

Key Words : Drug Addict, Recovering Drug Addict,
Occupational Activity, Phenomenological Case
Study